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의 경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이현경 · 채덕희 · 이경은 · 이민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Experiences of Middle-aged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in Korea: With Focus on Risk Factors in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s

Lee, Hyeonkyeong · Chae, Duckhee · Lee, Kyongeun · Lee, Meenhy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situations that might put the middle-aged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at risk for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s (WMSDs). At the development phase of a continuing health project, the study aimed to clarify health promotion program needs of the migrant population. **Methods:** A qualitative description research design was used with three focus groups of 23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Each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70-minutes using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lin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irect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echniques. **Result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ere household workers and their work included heavy material handling, standing for a long time, and working in awkward postures. They experienced discrimination from employers, lack of control at work, limitations in open-communication, job insecurity, and acculturation. They had needs to have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hronic diseases, depression and menopause as well as WMSDs. **Conclusion:** The participants were situated in work environments with physical demanding tasks, acculturative and job-related stress and lack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It is suggest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program to better meet the needs of middle-aged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rather than targeting the reduction of WMSDs.

Key Words: Musculoskeletal diseases, Migrants, Health promotion, Acculturation

주요어: 근골격계질환, 이주민, 건강증진, 문화적응

Corresponding author: Chae, Duckhee

College of Nursing,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228-3365, Fax: +82-2-392-5440, E-mail: dheechae@gmail.com

- 본 연구는 2010년과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제임(No. 2010-006684 & No. 2012R1A1A3019009).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o. 2010-006684 & No. 2012R1A1A3019009).

투고일: 2012년 10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5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7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s)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에서 업무상 질환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2011년도엔 전체 업무상 질환 대비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이 89.8%를 차지하였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06년도 산업재해 업무상 질환의 60.5%가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으로 나타났다(Lee, Kim & Kim, 2008). 최근 실시된 전국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5%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목, 허리,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느끼는 자세로 근무하며, 약 30%의 외국인 근로자는 힘들 때 쉬 수 없고 자신의 작업량과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고 약 24%의 근로자는 작업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Yi & Cho, 2012).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빠른 작업 속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l, 2003). 그밖에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도, 직무불안정, 직장문화와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증상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 et al., 2009).

국내 체류 조선족은 2011년도 말 기준 약 47만 명에 이르며 전체 국내 체류외국인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조선족 이주자는 절반이 여성으로 국제결혼이나 식당, 숙박시설, 가사도우미 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인력으로 국내로 다수 유입되었다(Lee, 2004;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조선족 여성 이주자들은 2004년 비숙련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인가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점차 증가하였고, 2010년도부터 한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단순 제조업과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의 복지 분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머무는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 후,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조선족 여성의 국내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Choi, 2010). 이들은 한국의 남성 중심 직장 및 사회문화와 지지 자원의 부재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i, 2007). 문화적응은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중국여성 근로자들이 중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국의 문화에 순응해가는 문화 통합의 정도가 낮을수록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Lee, & Ahn, 2010).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중년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울증상,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구강질환,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울증상 경험은 남성에게 비해 2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은 남성에게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국내 조선족 여성 근로자의 경우 중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요구도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활동 뿐만 아니라, 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작업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외국인 신분으로 인하여 직무안정성이 떨어지고, 보상이 부적절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족 여성근로자의 경우 모국과 다른 한국문화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인 문화적응(Berry, 2006)과 이 과정에 동반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여성 근로자가 주로 취업하고 있는 식당, 숙박시설, 가사도우미의 근로여건상 산업장에서 제공하는 체계화된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렵고, 전일제와 장시간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서울시에서 조선족 여성 근로자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일개 지역의 지역사회 기관들(조선족 교회, 외국인 병원과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기반 참여형 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를 시행하였다(Lee, Chae, Lee, & Lee, 2012).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요인인 신체적 부담을 직접 해소하는 인간공학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적으로 24주간의 스트레칭 운동과 위험요인 예방 및 증상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중재를 제공한 결과 유연성의 증가와 근골격계질환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 파악된 신체적 부담과 사회심리적 부담감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었기에 조선족 중년여성들

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관련 위험요인의 상황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경험한 작업 관련성 요인을 탐색하고,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을 위하여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가 한국사회와 직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관련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상황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후 동일한 집단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이외에 경험하는 주요 건강문제와 건강서비스 이용의 제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관련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기술(Qualitative Description) 연구이다. 질적 기술은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로 현상학적, 근거이론, 민속지학 연구방법과 달리 자료를 합성하거나 재해석을 최소화 하고 단지 분류하고 코딩하는 과정을 거치며, 대상자의 경험이나 사건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환경적 및 문화적 맥락의 근원에서 건강 관련 쟁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Sandelowski, 2000). 질적 기술의 목적은 “경험의 의미 해석(현상학적), 이론개발(근거이론), 심층기술(민속지학)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경험을 풍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건강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유용한 것으로 언급되었다(Sullivan-Bolyai, Bova & Harper, 2005).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2010~2011년

동안 조선족 근로자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포괄적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나 이들이 소개한 조선족 여성 근로자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하였다.

- 연령 35~64세
-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Krueger와 Casey (2009)의 초점집단 면담 지침에 따라 초점집단은 최소한 3집단, 각 집단별 대상자수는 4-10명으로 총 23명이 참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되었다(IRB 2011-0012). 자료수집을 위해 조선족 이주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 K 지역에 위치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책임자와 행정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의 자료수집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에 필요한 이론교육을 마쳤으며, 조선족 중년여성 및 미국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담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연구보조원 2명 또한, 간호학 석사과정 학생으로 조선족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참여하여 참여자 집단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연구책임자로부터 면담의 진행과정, 주요 질문, 현장 노트 및 녹취록 작성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진행과정, 면담내용의 녹음, 자료의 익명성 설명하였고, 연구참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 2인이 각 집단에서 사회자로 초점집단 면담을 약 70분간 진행하였고, 매 집단의 면담 시 1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석하여 좌석배정을 스케치하고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행동, 표정 등을 포함하는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연구보조원이 반복해서 들으며 컴퓨터 워드파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Krueger와 Casey (2009)의 초점집단 지침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이 개발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건강인식에 대한 도입 질문 3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인식에 대

한 전환질문 2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주요 질문 5개, 마무리질문 1개로 구성된 면담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한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robe: 부적절한 작업자세, 같은 작업의 반복,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것, 일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
- 이와 같은 원인들 이외에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근골격계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Probe: 업무량이 적절한지, 업무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동료나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도와주는지, 직장이 안정적인지(고용보장) 등
-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Probe: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나 빈번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녹취록에 의존하여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시적 내용분석은 이론이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분석 전과 자료분석 과정동안에 코드가 결정된다. 지시적 내용 분석은, 관심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나 이론이 제한적인 경우에 연구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로부터 코드를 발견하고 명명하게 되는 전통적인 내용분석(conventional content analysis)과 연구자의 관심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 전과 자료분석 과정 동안에 핵심어가 정해지는 부가적 내용분석(summative content analysis)과는 차이가 있다(Hsieh & Shannon, 2005). 연구자 3인이 자료에 익숙해지기 위해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발견하여,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요인의 2가지 범주에 따라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범주에 해당되는 알려진 요인들(예, 차별, 자율성 부족)로 자료를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질문에 따라 분석하기보다 전체 면담내용을 통해 나온 주제인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 위험 상황과 중년여

성이 경험하는 주요 건강문제영역으로 분석 결과를 조직화 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한 내용에 대해 연구자들이 서로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초점집단 면접에 참여한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들은 23명으로, 평균 연령은 53.4세이었고(51~60세), 기혼자가 77.3%를 차지하였고, 기혼자 중 가족과 동거는 45.5%였다.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59.1%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59%를 차지하였고, 현 직장 근무기간은 평균 5.4년이었고, 직종은 81.8%가 가사도우미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며 월수입으로 받는 임금은 평균 126만원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한국 체류 기간은 8.8년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72.7%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53.41±12.27
Marriage	Married	17 (77.3)
	Not married	2 (9.1)
	Divorced	1 (4.5)
	Others	2 (9.1)
Living with family [†]	Yes	10 (45.5)
	No	9 (40.9)
Spouse's nationality [†]	China	13 (59.1)
	Korea	1 (4.5)
Education	Elementary	1 (4.5)
	Middle school	8 (36.4)
	High school	12 (54.5)
	College	1 (4.5)
Job [†]	Domestic worker	18 (81.8)
	Restaurant worker	2 (9.1)
	Care worker	1 (4.5)
Work duration (per day)		10.0±6.62
Monthly income (10,000 won)		125.91±55.18
Duration of stay (month)		105.82±51.87
Religion	Christian	16 (72.7)
	Buddhism	1 (4.5)
	Atheist	4 (18.2)

[†] Percentages do not add up to 100 because of missing data.

2.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1) 신체적 위험요인

조선족 중년여성들은 입주 가사도우미와 식당일을 하는 동안 어린 아이를 안고 돌보아 주는 것, 음식의 조리, 고객 서비스, 설거지 등의 과정에서 무거운 식기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것,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조선족 중년여성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중국에서도 회사에 다니거나 농사일을 하는 등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신체적 부담정도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훨씬 크고 한국 직장에서의 긴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부족을 중국과의 차이점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신체적 부담은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 중년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주방에서 일하는 경우 가스불 열기로 인한 심한 더위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주 초기에는 이주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식당에 취업하였다가 이후 개인적 친분이나 소개소를 통해 신체적 부담이 덜한 입주 가사도우미로 전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2000년도에 와서 아휴... 힘들었죠...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1년 하고. 올때 돈을 빌려서 왔거든.. 돈만 갖고 나와 버렸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여기 쭉서고 잠도 못자고.. 그때 허리 병 걸린 것 같아. 식당이 그렇게 큰데... 주방에서 7명, 8명이 일하는데, 아휴, 석쇠도 크잖아. 설거지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아휴...”

“어떤 때는 물건 들다가 허리 빠듯한 적이 있어요. 애기를 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없이 그냥 스트레칭 없이 애 좋다고 오니까 애 안다가, 허리(가) 빠듯...”

“중국보다도 시간이 길어요. 일하는 거는 이런 일이나 뭐 저런 일이나 일하는 것은 뭐...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중국은 몇 시간 안 해요. 하루에 8시간 이예요. 근무시간이 여기는 갑자기 처음에는 10시간 일했어요. 그것도 한 달에 2번 쉬면서...”

2) 사회심리적 요인

초점집단 면담에 참여한 조선족 중년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원들은 한국 사람들의 차별과 불신, 자율성 부족, 고용 불안정으로 나

타났다.

(1) 차별과 불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인과 같은 동포이지만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한국인이 꺼리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업종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에 차별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조선족 중년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집 주인의 주거공간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 내의 유일한 타인이고, 유아를 돌보고 집 안일을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한국인이 아닌 중국 국적의 동포라는 독특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모’라는 친근감과 신뢰를 표시하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류 신분이나 행동을 의심하는 말투나 행동,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일일이 감시하는 것과 같은 한국인 집 주인이 보여주는 불신감에 분하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 주인과의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포들은 제 3선에서 일 해야 하고 무슨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무슨 공장들에 가서 해라, 그것도 염색공장, 건설 시멘트 합관공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냄새에 질려서 나오고. 가장 어렵고 고생스러운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해요. 합관 다루는 데서 일하고. 남자들이 가장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일해야 F4 비자를 준다고 하고! 동포로 인정을 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다르다.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뭐 무시한다고 말한다면... 힘들 때가 많죠. CCTV에서 딱 지키고 일하는 거, 그런데 가는 집마다 다 있더라고...근데 못 믿는 건 또 괜찮은데 조그만 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내가 한 7년 전인데 제가 한 세 집을 댕겼는데, 세 집이 다 있어요. 내가 겪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내가 뭐 당신네가 날 시험치는 거야... 그럴 때면 너무...”

“한 번씩 뭐가 없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한번은 방에 돈 봉투를 못 봤냐고 물어요. 애가 돈 봉투 만지는 것을 못 봤냐고 했어요. 나는 아기를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기가 돈을 만졌으면 내가 치웠을 것이고 돈을 봤다면 치웠을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에도 해명이 없었어요. 돈을 억 만금을 쥐도 그런 집에서는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 아빠가 저금 했나보죠’해요. 나는 어디 가서도 믿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한 번은 엄마아빠가 방에 있는데 애가 울어요. 그래서 애 엄마아빠가 있기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모는 이모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그런데 부부가 애를 데리고 놀다가 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방에 들어가요? 그런거 난 실례라고 생각해요. 애가 울면 사정을 얘기하고 부르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 후에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애 아빠랑 엄마가 ‘아, 이모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가족처럼 생각해요? 가족이 아닌데.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2) 업무수행에서 자율성 부족

가사도우미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참가자들은 주인과 밀접한 공간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업무수행에 자율성이 부족한 것을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 식당 일이 바빠 점심식사를 못하게 될 때에 별도로 주인이 식사를 챙기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챙기기가 어렵고, 음식을 먹을 때도 주인의 권유 없이는 먼저 먹을 수가 없는 등 중국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일상에 놓여 있었다. 한국에서는 고용주와의 의사소통에서 일방적으로 고용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으나 외면적으로 동의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몸이 아플 경우에도 고용주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걱정되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고, 업무가 한가하거나 끝난 경우에도 휴식을 편안하게 취하지 못하고 주인의 기분을 살피고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를 돌보는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태도가 부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연히 달라져 자신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계획된 시간 내에 일을 해내느라 조바심을 내며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커진다고 하였다.

“주인에게 맞추어 먹어야 되고, 그러면 주인이랑 아이들 주어야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먹다 남은 거 옆에서 얻어먹는 거고, 주인이 하나 먹어보라고 하면 먹는 거고, 덤석 내가 마음대로 먹는 건 아니잖아.”

“중국에서는 자기 성격에 맞지 않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주인이 말할 때 무조건 ‘예’하고 받아들이는데, 겉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안될 때가 있지요. 앞에서는 ‘예’하고 돌아서서 속으로는 ‘흥’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나는 아이 서이 있거든요. 가정집에서 일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전쟁판이에요. 그 서이다(세명 모두)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야. 그 때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있을 때는 순순히 뭐 하라는 거 제대로 하지만, 내 있을 때는 그게 아니야. 밥 먹으래도 안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하고, 그 때 내가 열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지. 시간은 됐는데 말을 안 들으니깐. 막 나 혼자 조금증 나고 열 받아. 어떨 때는 내가 열 안 받겠다고 했는데 저절로 열 받는 거야...(애들이) 천 가지 얼굴이에요”

(3) 고용 불안

한 참여자는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고용주가 직장을 그만두게 할까 봐 불안해한다고 하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경우는 가사도우미와 같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지금 일하는 집도 나가라고 할까 봐 마음이 떨려요. 나는 왜 이런 말 하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별별 떨어요...”

“교포라고 안 써요. 남성들의 경우도 60넘으면 딱 잘라서 안 쓴다고요”

3.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의 주요 건강문제와 의료이용의 제한점

중년의 조선족 여성 참여자들은 골다공증과 관절질환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염려를 하였으며, 중년여성의 주요 신체적 노화현상인 갱년기 증상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대상자가 비만,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및 건강검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노년기로의 접근을 앞둔 중년기 여성은 치매를 염려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조선족 중년여성들은 의료이용의 제한점으로 언어의 장애점, 의료비 부담, 근

논 의

무료 인한 시간부족,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단독으로 이주한 중년여성의 경우 가족 구성원 없이 본인만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주중에 시간을 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보건소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소, 직장인근의 의원, 보건소 등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TV매체를 통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얻고 있었으나 이용가능한 의료기관과 이용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한국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해 친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는 의료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의료인의 영어사용, 일방적인 치료 지시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뭐라고 할까? 관절에 대한, 아, 여기서는 뭐라고 하더라? 여기서는? 관절에 대한 것 요통이나 지금은 디스크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아요. 저가 나이 점점 드니까. 혹시 뭐 일하다가도 전날까지도 괜찮다가도 이튿날 아침에 허리 빼끗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요.”

“나이 먹으면서 기억력이 상실되니까 치매 예방 위해 어떤 운동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상실되잖아요. 나도 예전에는 똥똥했어요. 요즘은 애를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레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애기 엄마가 들어와서 ‘이모 걸레가 여기 있네요’라고 하면 예민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어느 곳에 가야 돈도 적게 드는지 또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어디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가격이라든지, 어디 가야 무슨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중국에서는 내가 병원에 가서 문답할 결과가 어떤가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는 환자들 말을 못하게끔 한다고... 의사가 설명하는 거 딱 들어야지. 거기 뭐 사진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면 딱 끝이라고(단호하게)...넌 아픈 것 만 말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 이런 거지.”

본 연구에 참여한 조선족 중년여성의 대부분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입주 가사노동을 기피하고 젊은 조선족 여성 또한, 사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식당 등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선족 중년여성들로 대체되는 현상을(Lee, 2004; Lee, Hong, & Son, 2010)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년층 조선족 여성 이주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없이 독립적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직종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적은 가사 도우미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4; Lee et al., 2010). 가사도우미 업무는 식당 종업원 업무에 비해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적고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석한 가사도우미들은 특정 신체 부위의 반복적인 동작(예, 엎드려서 걸레질하기, 걸레를 빨고 짜기)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예, 아기 업기나 안기)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시의 547명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Domestic Workers United and DataCenter, 2006)에 의하면, 입주 가사도우미의 30%가 무거운 것 들기, 23%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을 청소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오르기 등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10년도에 보고된 미국 내 가사도우미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사기업 일반 근로자들보다 3배가량 높았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1). 국내 가사도우미의 직업 관련성 질환 발생 현황을 보고하는 자료가 부재하여 비교 할 수는 없겠으나, 본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자료에 비추어볼 때 국내 조선족 중년여성의 가사도우미 업무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신체적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주 가사도우미 업무는 다른 서비스 직종과 달리 직장의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별이 없고, 업무의 범위나 양이 명확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밤늦게까지 장시간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이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예, 높은 직무 스트레스)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의 접근은 다른 직업군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에 비해 신체적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주방에서 뚝배기

와 같은 무거운 그릇, 석쇠 등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것과 장시간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따르는 신체적 부담을 언급하였다. 유사한 근무환경에 처한 뉴욕시의 식당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 호발 부위가 하지(63%), 요추(56%) 부분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Jayaraman, Dropkin, Siby, Alston, & Markowitz, 2011)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내 조선족 중년여성들이 장시간 서서 일하기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기와 같은 업무가 근골격계 증상 발생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의 중국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율은 약 60%(Shiue et al., 2008)와 84%(Chyuan, Du, Yeh, & Li, 2004)로 높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높았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가 중장년층 여성이고 대부분 가사도우미와 식당종업원이라는 측면에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과 비교하여 10시간 이상에 이르는 긴 노동시간, 한 달에 2번 정도로 제한된 휴일 등 휴식시간이 부족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조선족 중년여성 집단은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심리적 측면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는 조선족 중년여성 가사도우미와 식당 근로자 모두 한국인 고용주의 차별과 무시, 자신들의 업무와 감정 표현에 대한 자율성 부족, 고용불안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의 소수민족 성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종차별을 경험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Wadsworth et al., 2007). 따라서 조선족 중년 여성의 근무환경이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어지는 결과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고용주가 없는 가정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가사일의 대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선족 중년여성들은 대부분 입주 가사도우미여서 일정한 근무시간을 지키기 보다는 고용주가 요청 시에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사 일을 해야 하고, 조리를 하거나 육아 등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방식대로 따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들은 이주 근로자와 같이 안정적이지 않은 신분 자체가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Gaydos, Hoover, Lynch, Weintraub, & Bhatia, 2011) 지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그밖에도, 조선

족 중년여성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고용불안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불안은 직무 스트레스원의 하부척도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고용 불안이 높을수록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증상 호소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Jo et al., 2009).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족 가사도우미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조선족 중년여성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들은 조선족과 한국의 문화가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선족 중년여성 참가자들은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이 중국 직장생활 경험과는 많이 다르고,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규범에 따라야 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4)가 조선족 이주여성의 가사노동 경험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조선족 이주여성은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 근대적인 문화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규범에 이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 중 입주 가사도우미의 경우 그 가정의 요구 사항과 생활방식, 예를 들면, 부부가 아이와 같이 있을 때도 아이가 울면 가사도우미가 와서 돌보기를 기대하거나, 자신들이 돌보는 아동들의 태도가 부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경우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기보다 고용주의 요구 사항이나 행동을 순종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다. 이는 자신과 다른 고용주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반감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문화에 직면하여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Berry, 2006)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국내 외국인 여성근로자들 중 고유의 문화를 고수하지만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난 점에서(Lee, Ahn, Park, Kim, & Moon, 2011), 한국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이주자를 위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의 경우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친분이나 소개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Lee, 2004), 입주 가사도우미나 식당 종업원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산업장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수혜 기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참여자는 폐경을 전후한 중년여성으로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언급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골다공증, 골절과 관절질환 등 근골격계질환이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증상이면서, 이들의 주된 이주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이므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으로 유발되는 비교적 장기간의 근로 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건강문제인 우울 경험에 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Lee, Ahn, Miller, Park, & Kim, 2012),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이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이주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하나의 건강문제나 건강행위를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고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관리와 건강검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Choi 등(2007)이 한국인 중년여성 1,304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 검진 서비스, 뇌졸중 예방 프로그램, 여가 관련 프로그램, 운동, 고혈압, 당뇨 등의 순서로 높은 필요도 및 참여의향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한국 중년여성들은 부적절한 이용시간, 정보부족,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반면(Choi et al., 2007), 조선족 중년여성들은 의료보험의 부재, 의료비용 부담감 등을 장애요인으로 진술하여 차이를 보였다. 그밖에도 본 연구참여자들은 신경과민, 침체된 기분,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의 폐경증상을 호소하였다. Kim, Ha와 Shin (2003)이 한국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조선족 중년여성의 경우 피곤, 얼굴 달아오름, 손발 저림과 같은 신체화 증상이나 혈관운동성 증상의 호소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 기초한 것이므로 한국인 여성과 조선족 여성의 폐경증상에 대한 차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조선족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만성질환, 우울 및 폐경기 증상 예방 및 관

리를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관련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추후 기획할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기술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 지역 외국인 지원서비스 기관들을 통해 의도 표집된 조선족 여성 근로자 23명을 3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 면담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2월 11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이며, 연구자가 개발한 면담 가이드를 사용하여 약 70분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하고 전체 면담내용은 진술한 내용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한 후, 녹취록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신체부담감 위험요인으로 무거운 것을 자주 취급하는 것,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언급하였고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한국인 고용주의 차별과 무시, 자신들의 업무와 감정표현에 대한 자율성 부족, 고용불안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국과는 다른 문화와 작업환경에 직면하여 한국 사회의 규범에 맞게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언어적 장애, 건강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시간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한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건강증진 서비스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못하였다.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건강문제는 근골격계질환 이외에도 만성질환, 우울 및 폐경기 증상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선족 중년여성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건강문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중재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erry, J. W. (2006). Contexts of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 Choi, E. J., Yoo, J. S., Kim, H. S., Oh, E. G., Kim, S., & Bae, S. H. (2007). Utilization and needs assess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middle-aged women in public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1(2), 193-205.
- Chyuan, J. A., Du, C., Yeh, W., & Li, C. (2004). Musculoskeletal

- disorders in hotel restaurant workers. *Occupational Medicine*, 54(1), 55-57.
- Choi, C. B. (2010, April 24). *Legalized long term residence of Chosun-jok domestic workers*. Dong-A Ilbo. Retrieved May 7, 2012, from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424/27800417/1&toP=1>
- Cui, J. (2007). A qualitative study on adjustment and the pattern of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The Women's Studies*, 72(1), 143-188.
- Domestic Workers United & Datacenter. (2006). *Home is where the work is: Inside New York's domestic work industry*. Retrieved September 3, 2012, from <http://www.datacenter.org/wp-content/uploads/homeiswheretheworkis.pdf>
- Gaydos, M., Hoover, C., Lynch, J. E., Weintraub, J. M., & Bhatia, R. (2011). *Health impact assessment of California assembly bill 889: The California domestic work employee equality, fairness, and dignity act of 2011*. Retrieved September 3, 2012, from http://www.sfphes.org/Work_DWHIA.htm
- Hsieh, H. 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 Jayaraman, S., Dropkin, J., Siby, S., Alston, L. R., & Markowitz, S. (2011). Dangerous dining: Health and safety in the New York city restaurant industry.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3(12), 1418-1424.
- Jo, M. H., Kim, K. S., Lee, S. W., Kim, T. G., Ryu, H. W., Lee, M. Y., et al.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migrant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1(4), 378-387.
- Kim, S. J., Lee, H. K., & Ahn, H. M. (2010). Relationship between work-related psychosocial and acculturative factor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Korea-Chinese migrant workers liv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9(1), 28-40.
- Kim, Y. H., Ha, E. H., & Shin, S. J. (2003). A study on the menopaus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5), 601-608.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July).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statistics, year 2011*. Retrieved August 2, 2012, from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23&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Lee, H. K., Ahn, H. M., Miller, A., Park, C. G., & Kim, S. J. (2012). Acculturative stress, work-related psycho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4(3), 206-214.
- Lee, H. K., Ahn, H. M., Park, C. G., Kim, S. J., & Moon, S. H. (2011). Psychosocial factor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Southeastern Asian female workers living in Korea. *Safety and Health at Work*, 2(2), 183-193.
- Lee, H. K., Chae, D. H., Lee, K. E., & Lee, M. H. (2012). Application of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principles: Preventing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female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 *Workplace Health and Safety*, 60(7), 313.
- Lee, J. Y. (2004). *Domestic work experience of Korean-Chinese female migra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Y., Hong, G. S., & Son, Y. K. (2010). Living as a Chosun-jok aunt in Korea: Hermeneutical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life experience of Chosun-jok female domestic work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1), 25-36.
- Lee, S. W., Kim, K. S., & Kim, T. W. (2008).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compared with native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4), 351-361.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February). *Current Stat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2011*. Retrieved May 7, 2012, from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2&mode=view&bbs_cd=3&bbs_cd=105&state=A&seq=132970295868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December).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year 2010*. Retrieved October 11, 2012, from <http://knhanes.cdc.go.kr/knhanes/index.do>
- Sandelowski, M. (2000). Focus on research methods-whatsoever happened to qualitative description?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3(4), 334-340.
- Seol, D. H. (2003). *Survey for the current statu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need from supporting services*. Seoul: Korea International Labor Foundation.
- Shiue, H., Lu, C., Chen, C., Shih, T., Wu, S., Yang, C., et al. (2008). Musculoskeletal disorder among 52,261 Chinese restaurant cooks cohort: Resul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0(2), 163-168.
- Sullivan-Bolyai, S., Bova, C., & Harper, D. (2005) Developing and refining interventions in persons with health disparities: The use of qualitative description. *Nursing Outlook*, 53(3), 127-133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1).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 requiring days from work, 2010*. Retrieved September 3, 2012, from <http://www.bls.gov/iif/oshcdnew.htm>
- Wadsworth, E., Dhillon, K., Shaw, C., Bhui, K., Stansfeld, S., & Smith, A. (2007). Racial discrimination, ethnicity and work stress. *Occupational Medicine*, 57(1), 18-24.
- Yi, K. H., & Cho, H. H. (2012). The survey study on working conditions and industrial safety & health of foreign workers.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14(1), 53-63.